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 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이 상 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10개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학교계열, 성별 등의 학교관련 변인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관계를 연구하였다. 층화군집표집을 통해 총484명이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는 Barrett-Lennard (1986)의 공감적 이해 척도를 이은경(1989)이 번안한 것을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일반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실업계열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여고생의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교관련 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식이 성립되었고, 대화공감도와 성별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학교상담,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 교신저자 : 이상길, 건국대학교, (134-09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3 동아아파트 101동 1407호
E-mail : dave473@hanmail.net

청소년기 동안의 주요 발달과업은 정체감의 다양한 차원을 탐색하고 내적 일치감 혹은 안정감에 관한 수용을 완성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 정체감은 이러한 차원 중의 하나로써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avickas, 1985).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picture)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진로 정체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불가피하고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나아가 진로정체감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관을 보이며, 특히 진로를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결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진로정체감은 직업적·개인적 적응을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Holland, & Holland, 1997).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대해 강혜영(2002)은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자신의 심신에 관한 다각적 상태,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치관 및 이와 관련된 행동양식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진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신의 흥미, 성격, 신체적 조건은 어떠한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수집이다. 진로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은 직업분류, 직업의 종류, 직업 정보 탐색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파악하고, 학생들 스스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

신의 직업적 가치관을 확인하여 진로선택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일을 통해 행복감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에 확립되어 개인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탐색, 발견과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이상인, 2001).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역동적으로 발달한다. 그런데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진로 의식은 청소년기의 방황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진로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조은주, 2001).

대학진학을 비롯한 중요한 진로선택 및 결정을 위한 진로준비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에 대한 국내 연구(김득식, 2003; 성부경; 2003, 양승권, 2004; 이상인, 2001; 최인화, 1998)는 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의 결과론적인 관계에 치우치고 있어서,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한편 외국의 연구는 가족체계 내지 가정배경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다룬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Brown, 2004; Heppner, & Scott, 2004; Johnson, Buboltz, & Nichols, 1999; Whiston, & Keller, 2004). 그러나 가정 이상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학교의 인적·물적 차원과 그 속에서의 고등학생의 위치가 진로정체감 형성 및 발달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장면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심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신현숙, 김인아, 류정희, 2004). 하나는 학교 조직 안에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학교상담교사제도를 통한 활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 조직 안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 활동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학교가 속한 지역 사회 안에 있는 대학교의 학교정신보건사업팀이나 보건소가 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있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합학교상담체계에서는 상담교사, 학교심리학자, 학교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학생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 개입, 평가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발달적 요구와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학교상담가는 전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업 및 진로지도를 담당해 왔다(Fagan, & Wise, 2000).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를 비롯한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등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교사를 양성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로미결정 및 진학에 대한 고민 등을 비롯한 모든 학생 문제의 상담은 주로 담임교사가 맡고 있다(김상범, 2003). 중등학교에서 실질적인 상담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에 의해 진학지도와 교과지도 편중의 훈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권순명, 2000). 즉, 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상담업무 관련 교사가 진로결정이나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담임교사로부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신현숙 외, 2004). 따라서 진로정체감과 같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학교상담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비롯한 면담 내지 대화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며 학교생활만족도는 적응의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궁극적인 자기성취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학교가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생활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과 교사 및 또래집단과 상호작용적 교육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환경,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윤현영, 2003). 특히, 학교시설은 인적 환경 이전에 물적 환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구성원에게 교육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이주형, 2001).

학업성취란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는 점수를 말한다. 학업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 성취 결과에 대해 심리적 긴장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학업성취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해서, Phillips와 Strohmmer(1983)는 학업성취도와 의사결정 양식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을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신규(1992)는 학업성취도

가 높을수록 진로의 탐색과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윤삼희(2004)는 고등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진로정체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인구통계학적 차원에서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에 대해 국내외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양승권(200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다수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득식, 2003; 성부경, 2003; 윤삼희, 2004).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았다(Savickas, 1985). 고등학교 계열간의 진로정체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계열 고교생이 실업계열 고교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는 연구가 발견된다(김득식, 2003; 최인화, 1998). 그러나 이러한 인구통계적 데이터는 주로 미간행된 학위논문들이고 그 또한 회소하여 연구의 확산이 필요하다.

진로선택과 결정의 문제는 고등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고(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5), 이러한 문제를 가장 직접적이면서 적절하게 안내, 상담, 정치하는 것은 학교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진로정체감과 학교의 인적·물적 차원과의 관계에 대해 통합적이고 다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학교계열, 성별 등의 학교관련 변인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상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진로상담의 내실화

와 방향성을 탐색하고 대안을 구안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학교계열, 성별 등 학교관련 변인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 관련 변인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층화 군집 표집을 하였다. 서울지역을 동서남북과 중앙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에 소속된 고등학교 중 무선적으로 일반계열과 실업계열 고교를 각각 1개교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2학년 학급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총 10개 교에 700여부(일반계열: 400부, 실업계열: 300부)를 배부하여 530부(일반계열: 318부, 실업계열: 212부)를 회수하여 약 75.7%(일반계열: 79.5%, 실업계열: 70.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면서 응답이 지나치게 누락되거나 모호한 경우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실제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484부로서 회수된 설문지의 약 91.3%가 본 연구의 최종 표집 대상이 되었다. 고교생의 성별 비율은 여교생 236명, 남고생 224명, 무응답이 24명이었다. 계열별로는 일반계열 280명, 실업계열 188명, 무응답 16명이었다. 계열별 표집 대

상 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설문지 배부 단계에서 학생수의 차이를 감안하였고, 실업계 열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진로정체감 질문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Holland, Daiger와 Power (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정체감 척도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래 직업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직업선택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환경적 문제와 정보부족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고등학생 이상 성인용으로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다’가 진로정체감이 높은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니다’ 혹은 ‘그렇다’ 대신에 Likert식 4단계 척도로 수정한 김봉환(1997)의 채점방식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다소 그런 편이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olland, Johnston과 Asama(1993)가 MVS를 사용한 50여편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진로정체감은 적정수준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간 문화적 차이에도 동일한 구인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oporek, & Pope-Davis, 2001). Holland 등(1980)의 연구에서 문항

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통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고,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인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질문지는 Barrett-Lennard(1986)의 Relationship Inventory 중에서 공감적 이해 척도를 이은경(1989)이 번안한 것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는 담임교사가 고교생의 감정이나 언어를 잘 알아듣고 이해했음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고교생-담임교사의 대화에서 고교생이 지각한 의사소통 수준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정된 문항을 점검 보완하였으며 Likert식 5단계 척도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2, 4, 5, 8, 11번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순채점을 하였고, 나머지 6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반반이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역채점을 하였다. 최하점은 12점이고 최고점은 60점이며, 본 연구의 평균은 34.09점이었다. 본 연구는 중앙값($M_d = 35.00$)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한주희(2000)의 질문지에서 학교생활 전체만족도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환경을 비롯한 교사 및 교우 관계

등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집단과 낮은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고교계열은 일반계열 고등학교와 실업계열 고등학교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계열 고교에서 직업학교과정에 있는 학생일 경우는 실업계열로 분류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고교 2학년 마지막 전국학력평가(보통 11월에 실시)를 기준으로 상(1~3등급), 중(4~6등급), 하(7~9등급)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현재의 고민, 진로상담의 빈도, 상담 대상자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현재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는 '진학 및 성적 문제'가 87.8%(425명)로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했으며, '친구 관계 문제'가 4.5%(22명), '가정 관련 문제'가 1.7%(8명), '외모 또는 건강 문제'가 1.9%(9명), '기타'가 2.5%(12명) 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진로 문제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가 55%(266명), '한두 차례 상담을 받았다'가 36.4%(176명), '여러 차례 상담을 자주 받았다'가 7.6%(37명)이었다.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친구'가 51.7%(250명), '선생님'이 1.4%(7명), '부모님'이 13.4%(65명), '형제 또는 자매'가 5.6%(27명), '선배'가 1.9%(9명), '혼자 해결한다'가 25.4%(123명)이었다.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였다. 고교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만족도, 성별, 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와 성별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나 학교생활만족도와 계열은 기각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의 예언력을 다중회귀분석의 입력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계산한 결과 최소 1.019에서 최대 1.652이었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김은정, 박양규, 박중재, 2001),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낮았다. 자기상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Durbin-Watson 값은 1.865로써 위계치 범위인 $1.57 \leq d \leq 1.78$ (독립변수 6개, 관찰치 484, 유의수준 = .05)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결 과

학교관련 변인에 따른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의 차이

학교관련 변인에 따른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959, p < .01$).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가 높은 집단($M = 42.90$)이 낮은 집단($M = 40.64$)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학교관련 변인에 따른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의 차이

		N	M	SD	t		
대화공감도	상	247	42.90	7.703	2.959**		
	하	217	40.64	8.801			
학교만족도	상	326	42.51	7.576	2.378*		
	하	139	40.29	9.781			
성별	여	242	42.67	8.729	2.280*		
	남	225	40.92	7.784			
계열	일반계	275	42.71	8.540	3.105**		
	실업계	180	40.36	7.406			
		N	M	SD	F	Scheffé	
학업성취도	1. 하	125	40.24	7.461	4.202*	1 < 3	
	2. 중	248	42.14	8.547			
	3. 상	91	43.44	8.539			

주. * $p < .05$ ** $p < .01$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378, p < .05$).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M = 42.51$)이 낮은 집단($M = 40.29$)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280, p < .05$). 여고생의 진로정체감($M = 42.67$)이 남고생($M = 40.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계열에 따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3.105, p < .01$). 일반계열 고교생($M = 42.71$)이 실업계열 고교생($M = 40.36$)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4.202, p < .05$).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인 집단($M = 43.44$)이 ‘하’인 집단($M = 40.24$)보다 진로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교관련변인의 예언력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교관련변인의 예언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만족도, 성별, 계열, 학업성취도를 각각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INPUT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학교관련 변인의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식이 성립되었다($F = 5.745, p < .001$).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분산의 7.4%가 설명되었다($R^2 = .074$).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t = 2.821, p < .01$)과 성별($t = 2.861, p < .01$)이 고교생의 진로정체

표 2.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교관련 변인의 예언력

	<i>r</i>	<i>B</i>	<i>SE</i>	β	<i>t</i>	<i>F</i>	<i>R</i> ²
상담만족도	.147**	2.206	.782	.134	2.821**		
학교만족도	.125**	1.551	.854	.085	1.815		
성별	.126**	2.193	.767	.134	2.861**	5.745***	.074
계열	.153**	1.636	.857	.098	1.910		
학업성취도미1	.043	1.419	.964	.086	1.472		
학업성취도미2	.084*	1.923	1.220	.094	1.576		

주. * $p < .05$ ** $p < .01$ *** $p < .001$

감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었고, 대화공감도와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각각 $\beta = .13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예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생활만족도($r = .125, p < .01$), 계열($r = .153, p < .01$)과 학업성취도미2($r = .084, p < .05$)는 진로정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성별, 학교계열 등 학교관련 변인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일반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실업계열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여고생의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교관련 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식이 성

립되었고, 대화공감도와 성별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담임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담임교사가 고교생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 주고 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은 고교생으로 하여금 진로에 대해 명료하고 안정적인 자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신체적 조건은 어떠한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서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담임교사와 고교생 간에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고교생의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고교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교사 및 교우와의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적

관계와 학교시설 및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고교생이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고를 하고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고등학교는 진로준비기로서 진학 및 직업 선택과 결정을 통해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직업 정체감의 형성 수준이 낮을 경우 고교 졸업 이후에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Waidtlow, 2003).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조건으로써 학교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의 수준을 파악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을 진로결정과 통합하려는 노력을 견지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한 신념과 동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Lounsbury, Huffstetler, Leong와 Gibson(2005)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있어서도 정체감 수준이 대학에서의 학업성공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진로 정체감이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 윤삼희(2004)의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경쟁논리에 의한 대학입시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고교생의 입장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진학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넓게 열려 있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인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고교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그것은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에 대한 미흡한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Juntunen, & Wettersten, 2006; Wilde, 2001), 이러한 측면에 대한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진로상담 관련자들의 개입과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반계열보다는 실업계열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계열 고교생은 성적 문제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실업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학교를 통한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다(김상범, 2003). 그리고 대부분의 실업계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대학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지만, 진학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이성모, 2004)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진로정체감과 고교생의 성별과 관계가 없었다는 결과(김득식, 2003; 성부경, 2003; 윤삼희, 2004)나 남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는 결과(양승권, 200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것은 같은 직업적 포부를 갖고 있는 대학생일 지라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Savickas(198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세계에서

급변의 벽이 무너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여고생들이 보다 높은 직업적 포부와 미래의 진로성공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포괄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상담활동 실태는 매우 부진하여 대부분의 교사는 진로상담으로부터 어려움을 느끼며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전문성 수련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진혜옥, 2004). 더구나 학교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정보서비스가 다룰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태현, 2002). 따라서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임교사의 열정과 노력만을 기대할 것도 아니며,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기대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신현숙 등(2004)의 결론처럼 세분화된 영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 간의 협력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팀 접근을 도입하여 진로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교재학시의 진로상담경험 뿐만 아니라 대학의 상담서비스와 중학교 진로상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교진로상담 구축을 위한 제도적·방법론적인 대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정체감 형성의 성별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진로의식의 성숙을 위해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낙관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아강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처럼 남학생의 진로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추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에 특목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및 다른 학년, 다른 지역으로 표집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인 학교관련 변인들의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이 7.4% 정도에 미치고 있어 충분한 독립변인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차원의 진로교육, 진로상담전문교사의 역할, 학교상담의 실태, 진로관련 교과목의 설치 등 다른 변인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질문지는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못한 척도이므로 사용 후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며, 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학교의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해 대화공감도를 조사한다면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진로정체감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반대로 진로정체감이 높기 때문에 교사와 공감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는 차원에 대한 추후의 논의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영 (2002). 대학생 진로개인상담 모델: 서울대 대학생생활문화원을 중심으로. 학생연구, 36(1), 55-66. 서울대학교 대학생생활문화원.
- 권순명 (2000). 학교 상담의 과제와 개선 방향. 교육발전논총, 21(1), 173 -192.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득식 (2003).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의사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5).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상범 (2003).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박양규, 박중재 (2001). SPSS 통계분석. 서울: 21세기사.
- 성부경 (2003).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김인아, 류정희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 실태와 학교심리학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53-77.
- 양승권 (2004).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삼희 (2004). 고등학생의 자기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영 (2003). 중학생의 완벽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3), 313-330.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모 (2004).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1989). 공감적 이해(empathy)와 상담효율성간의 관계 분석과 모의 상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형 (2001). MMTIC를 통해 평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우울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현 (2002). 중학교 상담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해욱 (2004). 고등학교 상담활동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신규 (1992).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 (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주희 (2000). 인간관계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rett-Lennard, G. T. (1986). The Relationship Inventory now: Issues and advances in theory, method, and use. In Greenberg, L. S. (Ed); Pinosof, W. M. (Ed).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Guilford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series. (pp. 439-476).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Brown, M. T. (2004).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Counseling Psychologist*, 32(4), 587-595.
- Fagan, T. K., & Wise, P. S. (2000). *School psychology: past, present, and future (2nd ed.)*.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Hepner, M. J., & Scott, A. B. (2004). From whence we came: The role of social class in our families of origin. *Counseling Psychologist*, 32(4), 596-602.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in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Holland, J. L. & Holland, J. E. (199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Holland, J. L., Johnston, J., & Asama, N. (1993).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12.
- Johnson, P., Buboltz, W. C., & Nichols, C. C. (1999). Parental divorce, family functioning, and vocational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 137-146.
- Juntunen, C. L., & Wettersten, K. B. (2006). Work hop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94-106.
- Lounsbury, J. W., Huffstetler, B. C., Leong, F. T., & Gibson, L. W. (2005). Sense of identity and collegiate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5), 501-514.
- Phillips, S. D., & Strohmer, D. C. (1983). Vocationally mature coping strategies and progres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 canonic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3), 395-402.
- Savickas, M. L. (1985)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329-337.
- Toporek, R. L., & Pope-Davis, D. B. (2001). Comparison of vocational identity factor structures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2), 135-151.
- Waidtlow, D. M. (2003). Transition to work and vocational identity among lower income young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3(12-A), 4224.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 Counseling Psychologist*, 32(4), 493-568.
- Wilde, C. K. (2001). The vocational identity and self-appraised problem solv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1(10-B), 5592.

원 고 접 수 일 : 2006. 6. 5

수정원고접수일 : 2006. 7. 23

게 재 결 정 일 : 2006. 8. 11

K C I

Kore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Sang-Kil Lee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vocational identity perceived by 11th graders according to teacher's empathic communication,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academic achievement, curriculums, and gender.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was conducted among 11th graders from ten high schools in Seoul, South Korea ($N = 484$). Vocational identity was measured by Holland et al.'s scale(1980). Teacher's empathic communication scale was made.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higher satisfaction toward teacher's empathic communication, satisfaction toward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showed higher vocational identity. Academic high schoolers showed higher vocational identity than vocational high schoolers. Female high schoolers showed higher vocational identity than male high schoolers. Teacher's empathic communication and gender were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in the multi-regressio

Key words : vocational identity, school counseling, schoo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부 록

담임선생님과의 대화공감도 질문지

1. 담임선생님은 나의 말뜻을 정확히 파악한다.
2. 담임선생님이 내가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3. 담임선생님의 반응이 상투적이어서 담임선생님과 거리감을 느낀다.
4. 담임선생님은 나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린다.
5. 담임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6. 담임선생님은 선생님 시각으로만 나의 행동을 해석한다.
7. 담임선생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와 견해가 달라 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8. 나의 표현이 부족해도 담임선생님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한다.
9. 담임선생님은 나의 감정을 선생님 식으로 이해해 버린다.
10. 특정 문제에 관한 한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담임선생님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11. 담임선생님은 나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한다.
12. 담임선생님은 나의 말만 이해할 뿐이지 말 속에 잠긴 감정은 헤아리지 못한다.

K C I